

배우 도금봉



배우 김지미와 도금봉의 '양귀비 대결'을 다룬 1961년 11월 29일자 동아일보 기사

도금봉(도금봉, 1930~2009)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송도동에서 태어났다. 1957년 서울대학교 연극학과에 입학하여 1961년 연극계에 데뷔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연극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1970년대에는 영화계에도 진출했다.

도금봉은 1957년 서울대학교 연극학과에 입학하여 1961년 연극계에 데뷔했다. 그는 '연극계의 황금시대'라는 별칭을 얻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연극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연극계의 황금시대'라는 별칭은 그의 뛰어난 연기력과 다양한 역할 소화 능력에 기인한다. 그는 1959년 서울대학교 연극학과를 졸업하고 1961년 연극계에 데뷔했다.

도금봉은 “연극은 나의 삶”이라고 말하며 “연극은 삶(인생)”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연극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연극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연극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연극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 1974□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